



‘문방구 먹는 하마’ 다이소를 어찌하오리까



문구점 매출 하락 92.8%·폐업 고민 5.2% 문구관련 단체 “다이소서 문구 취급 불합리” 다이소 작년 매출 현황비상 규제대상 안돼



생활용품 유통업체인 다이소가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문구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유통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문구점이 9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하락했다’가 48.1%로 가장 많았고 운영이 위기 수준이라는 답변도 8.1%로 나왔다.

특히 응답에 응한 문구점의 46.6%가 다이소 입점 후 매출이 떨어져 운영을 계속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업종 변경 또는 폐업을 생각 중이라는 답도 각각 4.4%와 5.2%나 나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문구 관련 단체들은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를 발족해 다이소로 인한 피해에 공동대응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전국 매장이 1180개에 달하는 다이소가 지난해 매출 1조5600억원으로 국내 기업형 슈퍼마켓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을 넘었는데도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해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다이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문구업계는 정부에 대한 건의안으로 카

태고리 품목 제한, 생활전문매장으로 점포 평수제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 지정, 문구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기업형 점포 시 외곽 개설제한 등을 제시했다.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 측은 “다이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문구소매업까지 확대해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생활용품 매장임에서 문구를 이렇게 많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업계 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문구업계도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문구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이소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아직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다이소가 골목상권 문구업계의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문구 관련 단체가 다이소 탓에 매출 하락 및 생존 위협을 주장하며 한국문구인 미래혁신위원회 발족에 이 르렀다. 특히 다이소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 | 동아일보DB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374.32	↓	-6.08
코스닥지수	642.40	↑	+0.36
日 낮케이 지수	2만330.19	↓	-67.39
중 상하이 종합	3343.58	↑	+2.03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832	↑	+4.6
환율 (원·달러)	1137.20	↑	+2.7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775.79	↑	+711.31

오늘의 얼굴

박삼구 회장 경영 퇴진 의사 밝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사진)이 금호타이어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고 우선매수권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금호타이어의 자구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 정상화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 경영진과 함께 경영에서 즉시 퇴진하고 우선매수권도 포기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상표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호타이어 정상화 과정에서 영구사용권 허용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산은은 밝혔다.

비즈 TALK TALK

- “투자자보다 업계 자신의 이익을 우선했는지 돌아볼 필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26일 자산운용사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외형적 성장에 비해 책임과 신뢰 확보면에서 진정으로 투자자 이익을 위해 움직였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하며)
- “4차 혁명 대응, 실행 뒤 빨리 실패 경험하고 개선해야” (구자열 LS그룹 회장, 25일 안양 LS타워에서 열린 계열사 성과공회 ‘LS페어 2017’에서 표준과 절차에 얽매인 기존 연구 프로세스를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고)
-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6일 서울 남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자 긴급대회에서 지금이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할 시점이라며)

현대기아차, 상생경영으로 협력사와 동반성장 이룬다

동반 성장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현대기아차가 협력사와의 상생을 통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협력사들과 현대기아차의 평균 거래 기간은 30년으로 장기간 협력사의 생산 기술 R&D 지원을 통해 제품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대기아차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300여개 1차 협력사들의 평균 매출은 2001년 733억원에서 2016년(추정) 2722억으로 연평균 9.1% 지속 성장했고, 협력사 사당 평균 매출액은 3.7배 증가했다.

●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주요사업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경쟁력 육성, 지속성장 기반 강화,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을 동반성장의 3대 추진전략으로 삼고 협력사들의 품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자금 및 인재 채용 지원, 동반성장 문화 조성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 활동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2차, 3차 협력사들의 경영 개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고용 등 4대 분야와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와의 상생 및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사 R&D 테크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주요 기술과 지원 방안 등에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현대기아차

1차와 2·3차 협력사간 상생협력 관리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선순환형 동반성장’ 5대 전략을 발표하고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협력사와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창의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 놓인 협력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

고 있다.

2010년 동반성장 선언을 계기로 구성된 ‘협력사 R&D 기술지원단’은 2011년부터 본격적인 협력사 기술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총 300여명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R&D 기술지원단’은 협력사로 직접 찾아가 R&D 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소규모 부품사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시범이나 평가를 도와주고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협력사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인력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노동부 및 협력사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술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는 ‘직업훈련 컨소시엄’,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50여개의 소그룹을 구성해 구매, 품질관리, 생산 기술 등에 대한 합동 교육을 실시하는 ‘업종별 소그룹 교육’, 품질 및 기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운영하는 ‘품질학교’와 ‘기술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볼보 ‘더 뉴 XC60’ 출시...동급 최초 반자동주행 자동차

한국인 이정현 씨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

중형 SUV의 인기는 여전히 뜨겁고 그만큼 경쟁은 치열하다. 볼보가 26일 풀체인지된 2세대 XC60을 출시하며 이 시장에 또 한번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1세대 모델도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베스트셀링 모델이었지만 2세대 모델의 매력은 그 이상이다.

실내의 디자인에서 기존 수직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니크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외관 디자인은 볼보 자동차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 씨가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했는데 역대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이라 평가받고 있다.

실내는 더 특별하다. 실제로 차를 타는 사람을 위한 따뜻한 감성을 지닌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차체는 이전 모델보다 커져 전장은 45mm, 전폭은 10mm 늘어났다. 전고는 55mm 낮아졌고, 휠베이스는 90mm 길어져 더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볼보자동차 최초로 조향 지원(Steering Support)을 통한 ‘충돌 회피 지원 기능’ 세 가지가 추가됐다. 이 기능은 도로 이탈 완화 기능, 반대 차선 접근 차량 충돌 회피 기능, 조향 지원



볼보자동차는 26일 8년 만에 풀체인지된 중형 프리미엄 SUV ‘더 뉴 볼보 XC60’을 출시했다. 볼보자동차 이윤모 대표이사(왼쪽)와 볼보 최초의 한국인 디자이너 이정현씨가 차량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볼보자동차

적용 시각마다 정보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볼보자동차는 충돌 회피 지원 기능과 긴급제동 시스템에 조향 지원이 추가된 새로운 세대의 시티 세이프티 기술을 더 뉴 XC60의 전 모델에 기본 적용해 안정성을 높였다.

더 뉴 XC60은 디젤 엔진인 D4와 가솔린 엔진인 T6 두 가지 엔진으로 출시되며,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6090~7540만원(모두 VAT포함)이다.

원성열 기자

‘첫 여성 호텔CEO’ 신현숙 사보이호텔 회장, 은탑산업훈장

관광의 날, 24명에 정부포상 전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호텔 최고경영자(CEO)인 신현숙 사보이호텔 회장이 관광산업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제44회 관광의 날’을 맞아 27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광진흥공공자에 대한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이번에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신현숙 회장은 관광업계에 45년간 종사해 왔고, 최근에는 산학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사보이호텔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

다. 은탑산업훈장은 32년간 전국에서 70여회의 국제관광전을 개최한 신종목 코트와 대표이사 사가 받는다.

이밖에 유재천 동양해외관광 상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김철식 김스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관광산업 발전 공로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한 80여명의 공로자들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주한 외교 사절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재필 기자 oldfield@donga.com

농협은행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및 사진전’

NH농협은행이 28일까지 서울 서대문 본점 로비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품 및 사진전’을 연다.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로 경북 칠곡군 남원리 487고지, 용수리 558고지 등에서 발굴한 구멍이 난 철모와 탄피, 군화 등 230여점의 유품과 유해발굴단의 전사자 발굴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전시한다.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은 12만5000여명의 참전용사 유해를 찾아 국립현충원에 모시는 호국보훈사업이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데이터 경제

지난해 황혼이혼 역대 최대치

전체 이혼건수는 줄어든 반면 황혼 이혼과 고령 여성의 재혼은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자의 이혼 건수는 6101건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여성의 이혼 건수는 2910건으로 전년보다 9.6%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0만7328건으로 전년보다 1.7% 감소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함과 동시에 65세 이상 여성의 재혼도 전년보다 3.7% 늘어난 110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남자 재혼은 2568건으로 전년에 비해 3.9% 감소했다.

※ 2016년 전체 이혼건수는 10만7328건, 전년 대비 1.7% 감소

● 65세 이상 남자 이혼



● 65세 이상 여자 이혼

